



[낙농생산] 美, 사료가격 상승에 사육두수 감소세

-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만 5천두 감소하며 급감세



최근 사료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젖소 사육두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인 ‘스톤X 그룹(StoneX Group)’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전년대비 29% 상승하고, 지난 5월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료가격이 급증하면서 낙농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사육두수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사육두수가 8만 5천두 감소하며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1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9월 원유생산량도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사육두수 및 원유생산량 감소로 유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분석했다. < 출처 : ruralnewsgroup.co.nz, 10월 27일자 >

[지속가능] 뉴질랜드 유업체,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우유병 도입

-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 250톤 절감 기대



환경보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유업체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우유병을 도입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유업체인 메도우 프레쉬(Meadow Fresh)는 우유병에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rHDPE)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체관계자는 이를 통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플라스틱 배출량을 연간 250톤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ruralnewsgroup.co.nz, 10월 27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